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7.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8.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상정된 안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 ... 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5) ... 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2
7.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2
8.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4

(11시24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경영평가 참석을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의 불출석을 간사 간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7.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11시25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30일, 4월 2일 심사를 진행하여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안태준·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권영진·복기왕 공동발의, 복기왕·이종욱 공동발의한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유류구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버스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공정한 배차, 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생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의 구매비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복기왕·이종욱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생된 경우 유류의 구매비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규정 등의 주체를 수정하고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첨단산업, 물류 및 관광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공항경제권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르도

록 하며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요청 시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물 8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1시33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보조금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부장관 김윤덕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약 26조 200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개 사업에 대해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에 대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 도모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사태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 해외 건설기업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어 민생과 피해 산업의 회복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추가해서 중동전쟁 관련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국토부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전쟁이 5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 문제와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이동과 물류 흐름, 건설자재 수급, 나아가 민생물가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위기라는 인식으로 관계부처와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정부 대응체계에 적극 참여하면서 부처 내 비상경제상황 TF를 중심으로 건설, 육상교통,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의 수급 상황과 민생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와 추가 변동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한 치의 공백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산업현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문별 주요 전쟁상황 대책에 대해 기조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 배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에 유가 급증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양극화 고착 우려에 대한 해소,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에 따라 긴급히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안은 총 26.2조 원 규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이고 민생 회복에 2.8조 원, 산업피해 최소화 2.6조 원, 지방교부세 증액 등 기타 분야에 10.7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2조 원, 기금 가용 자원 1.0조 원 활용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5개 사업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 상황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의 환급률을 6개월간 50% 상향시키기 위해 8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에 1.3억 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검토 용역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 등에 따른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등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1회 추경안의 세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안 세출은 본예산 대비 1171억 원 증가한 24조 6932억 원입니다.

참고로 주택도시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주택 부문입니다.

증액 규모는 279억 원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877억 원 증액된 6457억 원,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10억 원 증액된 39억 원,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 사업에 4억 원 증액된 569억 원, 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원 증액된 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동전쟁 관련 국토교통부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부 대응체계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민생위기에 대응하여 상황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였고 중동전쟁이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도 비상경제상황 TF를 꾸려 건설, 육상교통, 물류, 항

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전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원활한 자재 수급을 통한 건설산업 지원, 고유가로 인한 항공·화물·버스업계의 부담 경감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부문별 주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국민들의 민간 5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모두의카드 환급률 확대를 위한 예산 877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단 감회·미운행 등 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연장,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이용 편의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업종 지원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버스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운임이 차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전 운임 준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안정적인 항공유 수급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전쟁으로 인한 분쟁 해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자재 수급 및 민생물가 관리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혼화제, 마감재 등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매점매석·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 시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생물가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택시· 시내버스의 운임과 요금을 관리하고 택배 이용료, 항공료 등도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은 평균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추경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비상대응체계도 차질 없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 분야 3건, 교통 분야 2건입니다.

먼저 국토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해 해외건설기업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바 법률 자문 등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사업 수행과 지원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1억 3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2027년에 대금직불지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ISP 중간산출물 도출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을 위한 279억 4100만 원 신규 편성은 현재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논의 경과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877억 800만 원 증액은 고유가 상황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본형의 환급률을 50%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인데 대중교통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 인하 등 보완이 필요한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책연구개발 사업 10억 원 증액은 지구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집행 관리와 연구 결과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 세 분과 비교섭단체 위원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접수받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장관님, 문제는 이번 추경에 중동전쟁 관련 추경이라고 하면서 정작 국토교통부 중동전쟁 관련 대응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맞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전쟁추경이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더 문제는 지금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응체계라든지 중점

분야를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응책을 보면, 자국내에서 돈 쓰는 것은 다 알아서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용품부터 건설자재까지 필수불가결한 나프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 각 건설협회에서 하고 있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모니터링하겠다 이 정도예요. 지금 산업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다 협업해 가지고 반을 편성했으면 나프타 수급계획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프타 수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부 소관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합동으로 반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국토부라도 나프타 수급계획에 대해서 적시를 해 줘야지요. 시장상황 점검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프타 수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이번 26조 원의 예산은 저희 국민들한테 국가경제에 영양제가 돼야 될 텐데 풍선껌 같은 효과만 거두고 말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토부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유류비, 물류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1171억 원 추경예산이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대중교통비 877억 원이라든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이라든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예산이라든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논의 중인데 총량 중에 이것으로 다른 것을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서 대체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유감스러운 것은 정책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10억 원인데, 지난번에 1·29 주택공급대책에 의하면 수도권 남부라든지 동부라든지 여러 대책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뒷북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대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려 그러면 발표 전에 그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이걸 10억 원을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교통대책이 실제 지구 단위로 쪼개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지역 간에 갈등도 있고 또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광역교통대책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뒷북이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왜 일찍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에 넣는…… 추경에 안 들어갔으면 검토가 안 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특히 교통 문제 또 정주여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고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건설업계가 엉망입니다.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쳐 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전쟁이 나면서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여러 기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택 공급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구요. 실제 지난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이 터지면서 주택 공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그 대책은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1·29 대책에 의해서 불광동 소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두 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1·29 대책에 의해서 1300호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1차로 이동하고 2차로 또 지방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 대책에 의해서 두 번이나 움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일지 언제 움직일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로서…… 또 1·29 대책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라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먼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실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예정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공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접촉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해수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해수부의 불만도 많이 있었지만 이전하고 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같이 만족도를 높여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장관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추경이 마련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장관님과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위를 따져 보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 말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10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국토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법안 미비라든지 재정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조와 그때의 형편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야는 최소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이 정도라도 최소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이 원래는 엇그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했으면 과정으로서는 아주 원만했을 텐데, 취지는 다 공감해서 정부가 최종 대체입법을 마련해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정도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으로 보면 법안이 완결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라도 마련하게 돼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 비율을 3분의 1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게 좀 아쉽기는 재정 당국은 지금도 국가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피해를 배상한 전례가 없다 하는 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하면서 지원 확대에 소극적이었고 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아쉬움이 컸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가 배상하는 것과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데 대한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금, 그러니까 인권 중에서 헌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주거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래서 현금 복지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도 보면 LH가 피해 채권을 매입하고 또 국가가 해당 주택의 재산권을 인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는 지원금을 지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재산권의 소유주가 되는 사업구조상 지원 비율이 50%로 상향되더라도 국가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손해나 또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가자산 관리 또 주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는 적극적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다음주에 예산 심의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3분의 1 수준 지원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로에 서 있어서 지원하면서도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가 이것을 마지막까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태영 위원 선지급 후정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공매차익으로 최소보장금 이상으로 회복 시에 3분의 1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최소보장금을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탁사기라든지 무권계약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LH가 공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거라 이번 예산에 안 담아도 되니까 그것은 빼도 돼요. 그런데 공동담보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의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에는 모든 담보물건 경매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가 이번 예산에 담긴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어떤 돌려받아야 될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어떤 최소지급 또 가능한 선지급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사소위 때 저희가 면밀히 점검해서 국토부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장관님, 어제 제가 중동전쟁 관련해서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중동전쟁 관련 국토교통부 대응 현황 오늘 보고하신 것? 어제 만드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언제 만드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저번주 일요일 날 만든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권영진 위원** 지금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고 벚꽃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빨리 추경을 한 것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때문에 3월에 탄 외에는 이렇게 빨리 추경을 한 예가 없는데, 정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산업계에 미치고 있는 충격이 크고 고통을 덜기 위해서 지금 벚꽃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기 중동전쟁 관련 국토부 대응 현황도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뭐가 문제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설사 이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지금 과연 이 추경예산안 다섯 쪽지가 여기에 부합하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나머지, 예를 들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이라든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정책연구개발 사업 이것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인 추경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추경이고 이렇게 벚꽃 추경을 하면, 정말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은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산업계에서는 산업이 스톱할 정도로…… 지금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 관련, 건설 관련 산업현장이 정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공사들이 중단된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자재 공급도 안 되고 자재가는 천정부지로 늘어나서 건설업계나 항공업계에 있어서 부담도 엄청나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요. 또 하나는 실제 어떤 방침을 정해 가는데 워낙 상황이 동태적인,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보니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걸 전제하에 예산이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님, 국회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증액안들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되면……

○권영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편성해서 넘기기에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해서 미처 해야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이 부분들은 국토위에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유가보조금이나 지원이 이번 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설현장에서 보면 건설기계장비 이것 전부 경유 쓰거든요. 벌써 유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 30%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유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것은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 부분들을 예산소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리고 위원님,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전세버스는 아니더라도 통근용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편성해야 될 책임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서 죄송하지만 그러저러한 요소요소에서 논의를 좀 국회에서 해 주시면…… 오히려 역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1분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권영진 위원 국토교통비상경제상황 TF는 언제부터 구성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쟁이 나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이미 중단된 데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비상경제상황 TF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이 부분들…… 이미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건의 도로공사 중단시켰습니다. 충북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이것 연내에 하는 것 다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순서가 있는데요.

김은혜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이 중대한 회의가 있으시다는데 순서를 바꾸……

○**김은혜 위원** 먼저 하시지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오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데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 최소보증과 관련해서 일단 안은 3분의 1로 하는 걸 해서 예산 편성한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1인당 한 2000건 이상 문자가 와 가지고 최소보증 50%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절규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문자이기는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국토부장관님께서도 50%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지를 피력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지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하여튼 실제로 이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에 개략 한번 추산해 봤을 때 50%를 한다면 치더라도 400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세사기라는 큰 사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세버스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택배나 택시, 노선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독 전세버스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지금 현재 대책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지금 현재 딱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초에 1600원 하던 것이 지금 거의 190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업계가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대부분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체결했으면 12월 달에 그 금액으로 그냥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만큼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데 갑자기 자재값이 많이 올랐든지 이렇게 하면 일정 정도 계상해서 새로 계약도 체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라든지 또 한시적 지원 항목 이런 걸 만들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응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계약서에—지금 표준계약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그런 것들을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우리 국토위원회가 안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들도 최대한 대안을 더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빨리한 이상 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장관님, 직접적인 고유가 피해를 받는 운전자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화물자동차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게요. 하루하루 기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택배·택시 운전자 또 푸드트럭 같은 생계형 화물차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유가연동보조금……

○**김은혜 위원** 보조금은 원래 했던 거고.

추경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지원하시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오늘 법안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유가연동보조금이 1916 원……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유가연동보조금 외에 직접 지원을 여쭙보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국민의힘이 합의한 건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 일정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추경안을 살펴보니깐 말은 전쟁 추경인데 실은 숟가락 추경이에요. 이게 진단은 고유가로 해 놓고 처방은 내 편 먹여 살리려고 숟가락을 얹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비리 적발된 지 얼마 됐다고……

가정용 미니태양광이 있거든요. 그게 250억이에요, 태양광 보급 624억. 중국산이 국내 점유율 95%인 태양광 셀, 이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하면 2200억 해서 중국 기업 배불리겠다는 건지…… 이자 보전까지 하면 5700억 원이거든요. 국토부와 관계없어도 이것은 나중에, 왜 말씀드렸는지 알 겁니다.

저는 이것 진짜 약자가 외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아파트 평균 월세 상승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이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없고 월세가 씨가 말라 가고 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주택구입대출, 전세자금대출 3조 7000억 원 삭감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책대출이 사라지면 청년들이 시중은행 가거든요.

장관님, 지금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아세요? 전세자금대출 하면 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수준으로? 5%, 6%……

○**북기왕 위원** 질문 그렇게 하지 맙시다.

○**김은혜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데 1.95%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저리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1.95% 저리로 전세자금 1.2억

을 대출해 준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를 봤는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술인만. 아니, 청년 주택 대출을 다 막아 놓고 예술인 150명만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장관님이 나중에 살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유가와 관계없는 이런 중국산 태양광보다는 주거약자를 살피는 게 이번 국토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된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현실화하고, 이것 30만 원만 해도 6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자 보전만 해도 중국산 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해요. 수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화물차, 택시 그리고 택배 운전자분들 유류보조금 직접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7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2199억입니다.

장관님, 이것은 내 편 살리느라고 진짜 약자가 올 수 있는 추경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는 진짜 약자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김은혜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특별히 할 내용이 없고, 김은혜 위원님이 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것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추경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장관님의 의지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저희들……

○김은혜 위원 자칫 위원 발언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아니다, 그런 평가 하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저희들이 예산 할 때요 필요하시면 논의하시면 됩니다. 논의하시면 돼요. 예산소위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박용갑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제가 약자를 얘기하면 가짜 약자고 장관님이 약자 얘기하면 진짜 약자입니까? 유감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장관님, 지금 중동전쟁 상황에 고유가 비상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버스나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택시나 전세버스 말씀하셨어요. 지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건설기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세버스, 물론 택시는 LPG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버스도 이렇게 보면 한 70%가 통학용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깊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사건 있었지요. 74명이 상당히, 14

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우리 대전 대덕산업단지가 1992년에 해서 한 32년째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재생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편입되면서 국가산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정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이런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나 산업부가 하는 건데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1억 원을 좀 증액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공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가 추경하면서 한정된 추경으로, 특히 전쟁 대비 추경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전체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처 현안 중에서 전세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국회에서 논의해 주셔서 가지고 증액을 하겠다면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추후에 좀 더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모색하면서 길을 찾아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국가산단 또 일반산단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산단들이 보면 다 20년, 노후된 산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사실, 보세요. 우리는 꼭 사고 한번 나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사고 나기 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전세사기피해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전세사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HUG가 90%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끊어 주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것도 사실 50% 그 정도 또는 처음에 시작했던 한 70% 정도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90%율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완만하게 그 비율을 낮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좀 나쁜 임대인들이 HUG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계속 생

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전세사기 반환보증보험 보증을 90%에서 사실 저는 50% 정도로 낮춰야 전세사기가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오늘 추경, 어쨌든 전쟁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토부에서는 특히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일 첫 번째 꼭지로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 한시 확대 이런 것도 좋지만 이번 추경안이라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못 들었습니다. 9 뭐요?

○김희정 위원 9유로 티켓이요.

장관님, 이것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난민들도 굉장히 독일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런데 22년 6월부터 3개월간 한 달간 9유로만 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ICE 같은 장거리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RE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마을이나 이런 것,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KTX 빼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KTX 하고 비행기.

그래서 어떤 효과를 거뒀냐 하면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났고 자가용 이용 감소율도 늘어났고, 감소를 했고 그리고 교통환경뿐만 아니라 CO₂ 감소율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3개월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대중교통으로 유입된 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로는 지금까지 49유로로 이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냈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시니 조금 유감입니다만 한번 살펴봐서 정책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면 제가 함께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그 시절에 베를린자유대학교에 방문학자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현장에서 실감을 직접 했고 효과를 눈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지방 관광 활성화까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처럼 굳이 영화나 숙박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9유로 티켓으로 그런 것까지 해결을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한테 9유로 티켓 제도에 대해서 일단 서류로 전해 주시면 제가 그것 읽어 보고 더……

○김희정 위원 제가 전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토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이 거기 현장에서 겪으신 것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이미 타고 있습니다만 역시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이분들은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더욱,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지자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김희정 위원 지자체가 하고 있지요? 정하기는 국가 법령에 따라서 했는데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권역에 살고 있는 국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희정 위원 67.5%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사실상 우리 국민의 7할 정도가 도시철도 이용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분들의 무임승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는 국가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유가 시대에 이런 대응을 지자체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도시철도 부담률을 코레일 부담률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코레일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비용을 제가 추경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으니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기획예산처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동안의 정활동도 해 오시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장관이 신임 기획예산처장관하고도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윤덕 장관님께서 김은혜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은혜 위원님이 약자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렸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김윤덕 장관님이 유독 김은혜 위원님 질의할 때 굉장히 날을 세우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김은혜 위원님이 하는 질의가 좀 불편한 내용들이 예전에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장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경우에 그래도 태도가 겸손하고 진중하게, 책임감 있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사과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게 말씀하시는 것 듣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 한 말씀하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냉소적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소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시다.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활동을 많이 했지만 실제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한 국회 내 논쟁에서 저는 민주당과 국힘의 논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재벌한테 지원하면 지원이고 약자한테 지원하면 퍼주기다 이런 논리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해 줬고요.

국토부장관을 하면서, 특히 예를 들면 이번 최소지원금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가 이런,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관이지만. 그래서 혹시 냉소적으로 들렸다면 저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김은혜 위원님, 특정 위원님에게 그렇게…… 저는 특정 위원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뭔가 정쟁으로 자꾸 논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정쟁으로 가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위원장 맹성규** 자료 요구요? 말씀하십시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요구하신 나프타, 이것 수급 현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는 업종들, 현황들 자료 좀 같이 함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유가 때문에 각 산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실 거예요. 국토부하고 관련된 것들만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교통 분야요.

○김정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희들 잘 이해를 했고요. 다만 장관님께서 재벌한테 지원하면 지원이고 약자들에게 하면 이게 퍼주기다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장관으로서 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앉아 있는 위치와 이쪽에 앉아 있는 위치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재벌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모든 중소·중견기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중견기업이나 하청업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꼼꼼히 살펴느냐가 우리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반도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국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정치적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기왕 위원 제가 자료제출 겸해서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뭔데요, 또?

○북기왕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줄 알고……

우선은 전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똑같고요. 어제 또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지금 각 건설사업장들, 공공·민간 그리고 해외, 중동과 그 밖의 지역 구분을 해서 멈춰 있거나 멈추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오늘 저녁 6시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전쟁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씀들을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셔서,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예산이 대중교통 환급비 지원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름을 좀 아끼자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는 우리 서민들에게 교통비를 돌려 드리는 전쟁 예산인 겁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 부분을 비롯해서 전쟁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쟁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또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불가피한,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정말 많이 불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민생에서 감내할 부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좋은 단어, 좋은 표현 그래서 우리 상임위 회의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전용기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3인)

윤재옥 천준호 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김태병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직무대리 문희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직무대행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리 박동선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리 박건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현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안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정왕국